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 ‘새 향해로 조국혁신당 이끌겠다’”

"국힘 소속 광역단체장 '0', 기초단체장 반토막 낼 것"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는 정당 만들겠다"

"거취는 당 지방선거 후보 결정된 후, 마지막에 결정"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 위원장은 10일 "내년 6월 지방 선거에서 양당의 나뉘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제가 조국혁신당의 당대표로 나서겠다"고 했다.

조국은 기자회견에서 "제1막은 끝났다"며 스스로를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새 비전과 가치로 당을 혁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선택 속에서 길을 개척해 왔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변화의 명령에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층을 보호하는 민생개혁, 경제개혁, 사회·사법개혁, 인권개혁을 포괄하는 여러 향해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국은 이를 위해 평등·기회·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정치적 파산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표현하며, 광역단체장 0명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특정 정당이 지역권력을 독점하는 구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전국 다인선거구에 후보를 배치해 견제와 균형을 되살리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검찰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한동훈을 직접 언급하며 검찰권 오남용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항소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정치적 공방보다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민주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 제안은 없었다"며

일부 의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지마 합당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당내 성비위 및 갑질 사건 처리 과정 역시 상세히 설명했다. 조국은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과장된 보도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론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지지율 문제에 대해서는 "바닥을 다진 상태"라고 평가하며,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마련되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칸 한 칸 차근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강조했다.

개인 출마 지역에 대한 질문에는 유머를 섞어 답했지만, 자신의 거취는 지방선거 전략과 후보군이 완전히 구성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고향 부산에 대한 애정도 인정했으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국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조국혁신당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조국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당원들의 결속과 참여를 독려했다.

진정화 기자

농어촌공사, 필리핀 산호세시서 한국국제협력단 위탁

팔라주 산호세시 공무원 30명 대상으로 한국 농촌 개발 경험과 기술 공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팔라주 산호세시 지방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한 '필리핀 농촌 개발 역량 강화' 현지 연수를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필리핀 팔라주 산호세시 농촌 지역 농촌형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 연수의 후속 사업이다. 공사

는 해당 연수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후관리사업 공모에서 시행 기관으로 선정됐다.

연수에는 산호세시 시장, 부시장, 시의원 등 고위급 관계자가 참가했다. 농촌 개발 전문가의 강의와 심층 토론을 시작으로, 현지 농촌 마을, 교육시설 방문을 통한 지역 현안 진단부터 마을 개발 사업 사업화 방안과 제언서 작성 컨설팅까지 현장 중심 연수가 진행됐다.

연수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문 기술과 함께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교류하고 이를 적용해 볼 수 있어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향후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다.

신홍섭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은 "이번 현지 연수는 공사의 농촌 개발 경험을 현장에서 직접 공유하고, 산호세시와의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연수 이후에도 사업화 가능성을 지속 모색하고, 맞춤형 협력 모델을 발굴해 한국형 농촌 개발의 우수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국내외의 농촌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협력국의 수요에 맞춘 국제교육과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진 기자

한전KDN, 에너지 ICT의 디지털 플랫폼 조성

빅스포 2025 컨퍼런스 속 전문가 발표와 자사 기술력 소개로 지속적 산학연 연계 유도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지난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BIXPO 2025 컨퍼런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스마트에너지 포럼'을 진행했다.

한전KDN이 BIXPO 전시회와 함께 에너지 ICT 기술 정보 공유와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한 포럼은 분산전원 및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망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한전KDN의 우수한 기술력을 소개하고 에너지 분야의 외부

전문가 강연을 통해 현재 및 미래의 에너지분야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당일 포럼은 'AI 기반 배전 설계 자동화 솔루션을 비롯한 분산전원과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과 보안 이슈 관련 한전KDN 전력IT 기술원 기술성과 발표 1부와 외부 전문가 초청 포럼 중심의 2부로 구성되었다.

특히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연구원장, 김윤수 광주과학

기술원 교수, 안선주 전남대학교 교수, 이종호 한국전력 충북본부장, 최영인 솔트룩스(주) 상무이사, 계승모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 등 학·산·관 전문가들의 분산 전원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력산업과 인공지능 기법의 적용 가능성 등 현재와 미래 에너지 분야 이슈 관련 다양한 의견 교환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전KDN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발전과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산학연 및 정부 정책 추진에 오늘 의 포럼이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전문가 초청을 통해 에너지 분야 이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국내 유일의 에너지 ICT 전문 공기업의 역할을 다해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LH, 수도권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본격 추진

LH, 9.7대책 성공적 실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전담 TF'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LH는 수도권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복합 거점형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복합개발 모델은 주거시설과 행정·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를 한 건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역 개방형 생활공간이자 도심형 복합생활거점으로 조성된다.

LH는 복합개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전담 TF'를 신설한다.

전담 TF는 복합개발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국토부·LH·지자체 간 협력체계 지원 ▲신규

사업지 발굴 ▲복합 유형별 사업 모델 수립 ▲관련 제도·법령 개선 지원 등 사업 속도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된다.

LH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28개 지구 4,956호를 준공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강동구에 기존 노후 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전호3동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했다.

청사는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로, 지상 1층~6층에는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이 배치됐으며, 7층부터 14층에는 공공임대주택(94호)이 들어섰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주거 공급 확대, 노후 공공자산 활용,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며 "전담 조직도 신설한 만큼, 노후 공공청사 개발사업 속도를 높여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경영 기자

JW이종호재단, 임직원 김장봉사로 지역 나눔 실천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주관 '2025년 모두가 나누는 김장축제' 참가

성금 1,000만 원 후원 및 임직원·가족 10여 명 봉사 참여



JW중외제약의 공익법인 JW이종호재단은 지난 1일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2025년 모두가 나누는 김장축제'에 참가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기업·사회단체·시민이 함께 동참한 지역 나눔 행사다.

JW이종호재단은 성금 1,000만 원을 후원했고, JW 임직원과 가족 10여 명이 현장 봉사에 참여했다.

JW 임직원과 가족들은 과천시 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김장김치를 버무리고 포장해 관내 취약계층 230가구에 전달했다. 아울러

대상 가구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제공했다.

이현진 기자

SKT, 9가지 유형 골드번호 1만개 주인공 찾는다

9가지 유형 골드번호 1만개 고객 추천 진행, 1인당 최대 3개 응모 가능

기억하기 쉬워 인기 많은 골드번호, 기존 가입 예정 고객 모두 응모 대상



SK텔레콤(CEO 정재현, www.sktelecom.com)이 골드번호 1만개의 주인공을 찾는 '2025년 골드번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골드번호는 1111, 0002, 3000

처럼 특정 패턴이 있거나 국번과 동일한 번호(ABCD-ABCD, ABAB-ABAB) 또는 특정한 의미(1004, 1472)를 갖는 번호다. 이번 에 응모할 수 있는 골드번호는 총 9가지 유형으로, 1인당 최대 3개

까지 응모 가능하다.

골드번호는 기억하기 쉽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SKT는 2023년부터 추천을 통해 제공하는 골드번호의 수를 연간 1만개로 늘려 고객들에게 골드번호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인기있는 골드번호는 ABCD-ABCD 형으로 국번과 마지막 4자리 번호가 좌우대칭을 이루는 유형이다.

이번 골드번호 추천은 기존 가입 고객과 신규 가입 예정인 고객 모두 응모할 수 있으며, 전국의 SKT 공식 인증 대리점과 T다이렉트샵(shoptworld.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늘(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11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골드번호 추천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정부 기관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번호번호 추천 위원회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첨 고객에게는 개별 안내사항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당첨된 번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19일 사이에 SKT 공식 인증 대리점과 T다이렉트샵에서 등록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S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도 해당 알뜰폰 사업자(MVNO)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골드번호 추천에 응모할 수 있다.

골드번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골드번호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사이에 골드번호 취득 이력이 있는 고객은 응모할 수 없다. 2025년 골드번호 프로모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T다이렉트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진 기자